

치 사

국민들에게 감동의 여운을 전하는 바쁜 일정에도 오늘 환영식에 참석한 불자선수, 임원, 그리고 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선전한 불자 선수단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으로 국민은 행복했으며 환희로웠습니다.

올해 8월은 유난히도 더웠지만 여러분이 전하는 메달 소식과 아름다운 선전에 청량한 밤, 감격스러운 밤을 가질수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벅찬 감동의 무대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불자선수들은 뛰어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많은 메달을 불자 선수들이 따낸 것이니 만큼 불자 임원 선수들의 활약은 너무나 대단했습니다. 더불어 메달은 따지 못했지만 불자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한편의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차분하게 집중하면서 정확성과 빠른 스피드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 모습은 평소 훈련과 마음 수행을 열심히 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이는 진정한 불자다운 모습으로 비쳐졌기에 응원하는 많은 불자들은 기쁘고 행복해 했습니다.

불자선수들이 많이 합류해 있던 핸드볼 경기 역시 메달 획득을 실패했지만 훌륭한 기량으로 혼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남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종목의 불자선수들 역시 그 몸짓 하나하나가 기억에 남는 소중한 감동이었습니

다.

오늘 우리 종단은 2012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최선을 다한 불자선수들과 임원단을 모시고 조출하게나마 환영식을 빌어 치하와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한 서로서로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우리 앞길에 다시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가며 땀 흘리고 기량을 키우며 마음을 다스려 나갈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과정은 곧 결과입니다. 좋은 결실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 과정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극복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결과도 훌륭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내면의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여 실천한다면 행복과 평화, 즐거움이 물무늬처럼 여울지게 될 것입니다.

런던 올림픽 및 패럴림픽에서 선전을 하고, 좋은 결실을 맺어온 불자 선수여러분! 임원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 국민들은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6(2012)년 9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